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이에로테오스 아테네의 주교

루가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아르메니아의 주교순교자

제1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주교순교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고린토 후 9,6-11 / 봉독서 272
- 복음경 : 루가 6,31-36 / 122, B 6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이에로테오스 아테네의 주교

하느님의 말씀에 결론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로가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4:12)

어느 누구도 하느님 말씀이 사람의 양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저버리거나 조롱할 때 정확히 보입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말씀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적은 수의 사람 중에는, 성 디오니시오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사도행전 17:34) 그 밖에 몇 사람 중에는 우리 교회가 10월 4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이에로테오스 아테네의 주교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낯선 방식으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리아의 에프렘 수도사(+373)는 수도 생활의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하루는 사막에서의 조용함을 뒤 하고 도시로 내려오기로 하셨습니다. 교회의 인물들과 만나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단들로 인하여 바른 믿음이 위협받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은 떠나기 전에 “주여, 내가 성문을 들어설 때 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붐비는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띈 사람은 자신을 음흉한 눈빛으로 유혹하는 창녀였습니다.

수도자는 하느님께 자신이 간청하던 바와 반대의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를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창피해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나를 똑바로 계속해서 쳐다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것처럼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습

니다. 당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흠으로 빚어진 당신은 당신의 기원인 땅만 계속 쳐다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답을 들은 위대한 수도자는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보다 이로운 가르침은 그에게 더 이상 없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해주십니다. 구약성서에도 나오듯이 하느님께서서는 나귀를 통해서 예언자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민수기 22장) 위에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창녀의 말을 통해서 에프렘 수도자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1고린토도 2:16)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



길 위의 돌



옛날에 한 왕이 커다란 돌을 길 위에다 굴려놓고는 몸을 숨기고서, 과연 누가 그 돌을 치우는지 보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쳐 가면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왕을 욕하였지만, 아무도 그 돌을 길에서 치워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볼품 없는 농부가 돌 곁에 멈춰 서더니, 돌을 살살 굴려서 길 옆의 도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농부는 돌 밑에서 금화 한 자루와 왕이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다. 그 편지에서 왕은 이 한 자루의 금화는 길 위에 놓여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던 돌을 치우는 이에 주는 보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늘의 왕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이 다 우연한 것만은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당신에 대한 신뢰도를 시험하신다. 이런 시험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따라서 우리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돌 아래에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한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들 축일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들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일 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축일 조과에 이어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축일 준비를 위해 각 지역 성당에서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의 인원을 꼭 수도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을 바자회 ▷ 오는 10월 2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성당 페인트칠 ▷ 지난 9월 셋째 주간에 성 니콜라스 대성당 외벽과 부속 건물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올해 세계총대주교님 방문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작용으로 더러워진 부분을 새로이 깨끗하게 칠을 하였습니다. 사고 없이 작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10월 1일(월) 성모 보호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10월 3일(수)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
아레오파고의 성 디오니시오스 아테네의 주교순교자 축일
이날은 수도원에서 오전 9시 축일 조과에 이어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